

브루스 월트키 박사, 시편, 강의 26

© 2024 브루스 월트케(Bruce Waltke)와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26회, 지혜시편 장르입니다. 시편 편집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시편의 또 다른 장르, 즉 지혜시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혜의 시편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사법에 대해 토론하고 후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는 지혜 시편 49편을 보았습니다.

전례와 전례의 역할, 상징을 살펴보면, 전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과 소통하시는 방식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거기서 무엇을 상상으로 보았는지 시편 73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의 내용을 폭넓게 살펴보면 제가 집중할 시편은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 소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hokmah) 이다 . 능숙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온갖 스킬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로 번역되는 이 호크마(hokmah) 는 뛰어난 이해력, 기술,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잠언을 가르칠 때 이것을 확장해서 성막을 건축한 브살렐과 오홀리압, 성전을 건축한 히람과 같은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기술을 가리킵니다.

이집트 마술사의 기술을 활용한 마술입니다. 그것은 정부에 사용됩니다. 게다가 신명기 1장에는 모세가 나라를 다스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임명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교에 사용됩니다. 전쟁에 사용됩니다. 지혜문학, 즉 욥기, 잠언, 전도서, 49편과 같은 선정된 시편과 예언서에서 지혜는 영생의 길로 살아가는 기술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살고 있는 것, 지혜의 전형적인 주요 비유는 영생의 길입니다. 지혜는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악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뱀조차도 교활합니다. 지혜, 아룸, 교활함, 교활함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와 연관되는 용어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에 관해 말할 때는 의로움도 의미하며, 그 용어들은 서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직책을 갖고 있는 부사장을 상관어로 비유합니다. 그는 상원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다른 기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원 의장이라면 대통령을 대신할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으면 의도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지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함께 사용됩니다. 그것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문학의 형태는 훈계와 교훈이다. 그것은 테스트에 직면했을 때 경고로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훈계란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 선을 행하라는 것, 죄를 피하라는 것, 적절한 때에 죄를 고백하라는 것, 혀를 조심하라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전부 지시입니다. 훈계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훈계에 아름다운 약속이 추가되며 때로는 for와 함께 소개됩니다. 부정적으로 그것은 신정론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경고가 될 수도 있다. 즉, 승리에 직면할 때는 악이 승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 살도록 유혹하는 물질적 소유물에 폭 빠지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이 욕과 전도서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불행으로 인해 불만을 품는 것, 불경건한 부자에 의해 화를 내는 것, 재물에 놀라거나 그것을 신뢰하는 것 등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73편과 49편에서 지혜의 종류로 매우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시편 49편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당황하거나 안달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후렴을 듣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의인들이 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그가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가 그 시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 의해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4절에서 그는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을 정의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의 형통과 그 자신의 고난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는 그가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지 않다고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의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73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토라 시편과 지혜 시편을 함께 모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토라 시편은 우리에게 토라와 율법을 지키라고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은 토라 시편이지만, 토라를 지켰을 때 받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영생의 잎사귀를 가진 나무의 상, 첫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교리교육인 토라(Torah)를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시편에서는 모세의 율법이나 현자들의 말씀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또한 행악자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훈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건너뛰겠습니다. Gunkel은 그것을 시작 등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326쪽에는 지혜에 관한 시편을 분류했는데, 토라 시편은 시편 1장 19절과 1장 19절입니다. 전적으로 긍정적인 훈계가 담긴 시편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긍정적인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27, 133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훈계는 앞서 시편에서 본 것입니다. 음, 저는 시편 37편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49편과 73편입니다. 이제 저는 토라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율법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현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편이 시편 전체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책의 서문인 3, 4, 5, 6, 7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의 애가입니다.

그런 다음 시편 8편에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로 복종시킬 사람의 높은 지위에 대한 찬양 시편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는 9편, 10편, 11편, 12편, 13편과 또 다른 다섯 편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묘사하는 14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인류의 최악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말뭉치입니다. 그래서 서문이 있고, 5편 뒤의 8편과 5편 뒤의 14편과 같은 두 개의 시편이 있는 3편부터 14편까지 있습니다. 이제 15편부터 24편까지가 있는데, 이는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편은 주님의 산에 오르는 입회예배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4편에서 그것을 읽습니다. 우리는 누가 여호와와 산에 오를 수 있는지를 읽습니다. 방금 살펴본 시편 16편은 본질적으로 신뢰의 노래이며 시편 23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4편 이전의 노래인데, 그것은 신뢰의 노래인 유명한 목자 시편입니다. 보세요, 시편 17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인 시편 22편과 일치합니다. 시편 18편은 그가 모든 대적을 물리친 후의 왕의 시편입니다.

왕실 시편입니다. 시편 20편과 21편은 왕실의 한 쌍입니다. 20절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은 전투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바위가 부딪힌 곳은 시편 19편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시편 19편은 토라 시편이다. 다시 말해서 시편 1편은 이 중요한 지점에서 시편을 소개하는 토라 시편이므로 중간에 토라를 훈계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나오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을 살펴보고 번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나는 특히 하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을 돔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롬이 단단한 것, 창공, 돔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 물이 있고 수정처럼 맑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궁창은 그의 작품을 선포합니다. 날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실제 발언은 없습니다.

실제 말이 없고 누구의, 그것이 하늘이고,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 주위에 있어야 하는 괄호여야 합니다. 브래킷은 하늘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데시벨이 아니라 소리 데시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리는 비록 조용할지라도 온 땅에 통하고 그들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보내셨으니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장사 같이 기쁨으로 달리는 것 같도다. 그 떠오르는 것은 하늘 끝에서부터 그 순환은 하늘 끝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열기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법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와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느니라.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느니라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히 지속되느니라.

주님의 법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키면 상이 크나이다.

누가 그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숨겨진 결점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종을 오만한 사람들이나 오만한 사람들에게서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나는 큰 죄악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 없고 결백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게 하소서.” 8절에 보면 여호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야샤르 (yashar)는 완전 곧은 것을 뜻하며 흠이 없고 세로축으로도 쓸 수 있으며 완전 곧고 꼬임도 없고 휘어짐도 없고 가로축으로는 아니, 다시 말하지만, 울퉁불퉁함도 없고 완벽해요. 부드럽습니다. 똑바릅니다. 깨끗합니다.

그것이 바로 옳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시편에는 지혜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도 지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과 동일합니다.

9절 후반절에는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뜻에 대한 객관적인 계시를 수반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계시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법을 좇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것을 본받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세의 토라의 가르침, 교리, 순종과 같은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번역 중 하나는 제가 번역한 방식입니다. 당신의 종도 무례한 자로부터 지켜 주소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제넘은 죄로 번역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역을 옹호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종을 지켜 오만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통적으로 그것이 주제넘은 죄로 번역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12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에 대하여 내가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는 내가 알고 있고 의도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죄와 대조되는 고범죄를 번역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단어, zadim 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zade 입니다. 잠언 21장 24절을

제외하면 항상 복수형으로 13번 나온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남성형 실질형용사, 즉 insolent, the insolent와 같은 명사로 사용되는 형용사이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 유형의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 말라기 3:15, 시편 86:15을 공격하는 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하는 자, 예레미야 43:2, 경건한 자를 무자비하게 조롱하는 자 119:51, 거짓말을 위조하는 자 119:69, 구덩이를 파는 자 119:85.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119:78 그들이 그를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9:22. 나는 그들을 꾸짖고 119:21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3:11, 마가복음 4장과 잠언 21장을 확인하세요. NIV는 이것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마카는 그의 이름이다.

그는 무례한 분노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NIV는 단수형 zade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번역합니다. 자딤 에 대한 이 12가지 다른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내 생각에 자딤은 자신의 중요성과 부족함에 대한 과장되고 교만한 의견으로 인해 두 가지 모두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출되어야 합니다. 현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휘집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일치에 의존합니다. 방금 모든 사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지혜와 진리를 무시하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무례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하나님께 무례한 사람들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주기도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회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매우 겸손한 기도입니다. 괜찮은. 그래서 번역이군요.

이제 우리는 번역본을 손에 쥐고 시편의 구조로 이동합니다. 위첨자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2절에 밤에게 밤에게 지식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실제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을 보여주는 토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율법과 그 율법의 탁월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슬러 소생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며 눈을 밝게 하는 등의 일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는 토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숨겨진 죄와 불손한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중 기도를 할 것입니다. 토라와 청원 사이에 있는 야누스는 11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것으로 당신의 종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법을 통해 경고했다는 청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청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면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7절부터 10절까지를 되돌아보면서 토라를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간구하게 됩니다. 야누스에서는 이전 내용을 언급하는 B 절 세트와 그 이후에 오는 내용을 언급하는 A 절 세트를 얻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야누스 구절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시편들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학에서 그 논리는 무엇입니까? 창조를 찬양하는 것에서 토라를 찬양하는 것으로 급진적인 전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읽은 주석에서 스탠자에서 스탠자로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Michael Fishbane은 스피커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탠자에서 하늘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주님은 율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청원 부분에서는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논리 요청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 다른 스피커가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찰이네요. 내 생각엔 거기 있는 것 같아. Meinhold에서 그는 단어와 관련하여 주제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것이 무너지는 부분은 창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차이를 논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나는 Craig Broyles의 논평에서 그가 움직임의 수축을 언급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것은 하늘, 하늘의 광대함에서 시작하여 더 좁게 율법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더 좁게 예배하는 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수축하는 움직임을 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것의 창조자인 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나(I Am) 또는 주님에게로 축소되는 움직임을 본다. 그러자 다윗은 그분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요 구원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흥미로운 관찰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시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의 계시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 그의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나는 칸트가 자연의 계시에 놀랐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자연계시를 자신을 놀라게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주변의 창조물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자연적으로 계시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도 일반 계시에 양심을 포함시켰고, 하늘의 증언과 그의 양심의 증언이 그를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두 가지가 늘 새롭고 점점 더 커지는 감탄과 경외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자주 그리고 꾸준히 묵상할수록,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내 시야 너머의 가려진 모호함이나 사치인 것처럼 추구하거나 추측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내 앞에 보고 즉시 내 존재에 대한 의식과 연결시킵니다. 실천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그는 이 두 가지 계시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 말하는 대신 양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혜 문학에 대한 나의 작업 덕분에 나는 창조와 법칙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과정에서는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고, 포괄적으로 알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물을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생태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물을 댐으로 막는 결과와 그것이 어떻게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산불처럼 우리는 산불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산불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숲의 지속적인 생명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의 삽화를 여러분 모두와 공유했습니까? 이 수업에는 당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잠언 강좌에서 그랬지만 이것이 시편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는 포괄적인 지식 없이는 절대적인 지식도 없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캠퍼스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도서관입니다. 그것은 멋진 도서관이고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최고의 장소,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진 사무실은 도서관 자체의 핵심을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연구를 위한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캠퍼스의 자랑이죠. 제가 1986년부터 91년 사이에 그곳에서 가르쳤을 때는 학생들이 직업 전환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바로 졸업했지만 이제는 이미 경력을 쌓은 고학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력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을 바꾸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앨라배마 주 헌츠빌에 있는 NASA에서 일했던 지질학자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라돈 가스 측정이었습니다. 헌츠빌에서 필라델피아로 이사했을 때 그의 아내는 지역 Abingdon 병원의 간호사인 RN 직위를 얻었습니다. 지질학자로서의 그의 훈련은 그 지역이 라돈 가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아침 라돈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도서관으로 가져왔고, 그날 오후에는 병원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 지하에서 라돈 가스를 측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측정값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환경에서 라돈 가스의 양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기에는 4개의 피코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모의 1000분의 1, 수천의 수천입니다. 대기에는 다양한 4개의 피코큐리, 즉 4개의 라돈 가스가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연쇄 흡연자라면 200피코큐리의 라돈 가스를 흡입하게 됩니다. 우라늄 광산에서 일하면 일반 대기에서보다 100배 더 많은 400을 흡입하게 됩니다. 당신은 400을 얻습니다.

나는 우라늄 광부들이 신체가 모든 유독가스를 해독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1년씩 휴가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글썄, 그는 도서관에 측정값을 설정했는데 측정값은 4,000피코큐리였습니다. 그럼 백번이었는데 그게 뭐죠? 우라늄 광산보다 100배 더 많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라돈 가스 농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헛츠빌에 있는 NASA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읽은 내용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가스를 측정하는 가장 뛰어난 측정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측정했고 그의 판독값을 확인했습니다. 4,000피코퀴리였습니다.

나는 다음날 사무실에 갈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과 창문에 검은색과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라늄 광산보다 천 배, 백 배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건축업자, 음, 도서관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선의 장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포괄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최악의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그러므로 포괄적인 지식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글썄요, 지질학자들은 도서관 바로 아래, 지구의 창자 속으로 직접 40마일 아래에 균열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이 균열을 통해 우리 도서관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아니면 바위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책장처럼 부서지면서 라돈 가스를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신문에서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도서관 구석에 파이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하실 벽을 따라 독감 사건을 겪었고 엘리베이터 뒤에 독감 굴뚝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에어팬, 즉 에어 샤프트 팬을 올려 공기를 빼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신학교에 큰 도움이 되도록 15,000달러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유독한 공기를 공기 중으로 펌핑했습니다.

응. 글썄요, 도서관에 집중하지 않고 어쨌든 거기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중에 있는 4개의 피코퀴리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건 집중력이 아닙니다. 응. 그러므로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그런 연관성을 봅니다.

온 땅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땅을 두르는 태양 속에서 그분의 폭넓은 지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법은 전체론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한 결코 명확하게 또는 절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문학의 논리이다. 욥의 위대한 지혜의 시에서 그러한 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이것이 현인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가르침이 지혜 문학의 일부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8장에는 욥이나 욥기의 저자가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그는 지혜와 계시 없이는 지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2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해력은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 자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깊은 곳은 내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값비싼 마로나 청금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수정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 보석으로도 얻을 수 없느니라. 산호와 벽옥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지혜의 대가는 루비를 뛰어넘습니다.

구스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순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해력은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도 감춰져 있고 땅의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늘의 새들에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파멸과 죽음은 소문만 우리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해하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땅 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십니다. 즉, 그는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을 정하시고 물의 길이를 정하실 때, 비에 대한 명령과 해와

폭풍의 길을 정하실 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확증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사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나타내는 동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거기로 가고자 한다면 그도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요는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330쪽에 있는 당신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Agur의 인식론이며, 어떻게 진실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의 지식의 원천입니다. 지식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그는 5번의 고백을 합니다. 30장은 야카의 아들 아굴의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이자 현자로서 말합니다.

감동받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영감받은 말씀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요약입니다. 그것은 “나는 피곤한 하나님이지만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번역을 변호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잠언 15장부터 30장까지의 주석에서 그것을 옹호합니다. 당신은 이 번역의 변호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일 뿐이다. 나는 인간의 이해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누구의 손이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겹옷으로 물을 감쌌습니까?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신하는 이들의 방패이십니다.

여기 그의 인식론에서 그는 다섯 가지 고백을 한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은 그의 무지입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2절, 확실히 나는 단지 짐승일 뿐입니다. 지식이 없거든요. 나는 인간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인간의 이해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지식이 없다는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둘째, 그는 전체를 보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느냐? 그러면 창조를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손이 바람을 모았느냐? 누가 물을 겹옷으로 감쌌느냐? 그리고 세로축의 4a를 짚지어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갔고 가로축에서 내려왔는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없고 땅끝까지 보지 못하면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시며 땅끝을 정하신 이가 누구시뇨? 물과 구름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이름은 I Am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네 번째 고백에서 그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언에서는 아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에 이 해석은 외경인 바룩 3장 29절부터 36절까지에서 확증됩니다.

그는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지혜를 취하여 구름에서 내려왔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사겠느냐? 그녀에게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녀에게로 가는 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녀를 아십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로 그녀를 찾았습니다. 땅을 영원히 예비하신 분은 땅을 네 발 가진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지식에 이르는 길을 찾아 당신의 종 야곱, 곧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듯이 이 지식과 계시를 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려는 다섯번째 고백은 5절에 '좋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아시는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신하는 이들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내가 연을 연관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므로 전체를 보시고 하늘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들은 그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편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율법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체계적 계시에서 질문을 합니다. 시편 19편이 사용되며 연 사이의 연결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연결을 확인하는 합법적인 방법인가요? 네, 저는 번역하기 전에 페이지에 새 페이지인 329, 326, 이전 페이지 매기기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의 통합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대한 그분의 계시의 두 가지 기본 유형, 즉 창조를 통한 자연 계시와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쨌든 현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주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에 더 깊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Bruce Waltke입니다. 26회, 지혜시편 장르입니다.